

## 공익 대변인

### Catherine Guerriero (D)

저는 여러분의 다음 공익 대변인이 될 캐시 게리어로입니다. 저는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3 대에 걸쳐 노조원으로 일했던 가족의 산물이지요. 제 조부모님은 항만노무자였고, 어머니와 아버지는 교사로 일하셨으며, 제 여섯 형제자매는 교사, 소방관 또 경찰관으로 각각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덕분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이자 대학교수, 아내이자 교육자이며 또 동시에 투사입니다. 저는 아이들에 관한 사항이 모든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에 교육정책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저는 컬럼비아 대학 및 뉴욕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난 10 년간 뉴욕 대주교구의 전략적 계획수립 책임자로 일했고 에드워드 이건 추기경을 위해 교황 방문을 관장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공익 대변인직에 출마했습니다.

뉴욕시는 지금 역경의 시기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변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상황을 잘 파악하고 많은 이들이 거추장스러운 공직이라 여기는 이 공익 대변인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육자로서 이것을 확실히 압니다: 교육이 시장의 권한 아래 놓인 지난 12 년은 뉴욕시 공립학교 아이들을 저버린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배제되었고, 저는 제 가족과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 교장 그리고 학부모들이 정부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손가락질받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습니다. 이해 관계자들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이 경선에 출마한 그 어느 후보보다 노조의 지지를 많이 받은 후보입니다. 평조합원들은 제가 아는 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노조가 지방정부의 힘을 약화시켰다는 건 크나큰 거짓말이라는 것ですよ.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도시를 일으켜 세운 자들입니다.

제 아버지는 노조원으로 두 개의 정규 일자리를 갖고 있으셨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교사로 근무하신 후 집에 와 옷을 갈아입으시고 4 시에서 12 시까지 항만 경비원으로 일하셨습니다. 지금 예순여덟이신 아버지는 이렇게 저축하셨습니다. 노동계약의 약속을 믿고 평생 열심히 일하시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연기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제 아버지의 주머니에 손을 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더는 참을 수 없어 출마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노조를 지지하는 후보이며 교육자이고 엄마이자 노동계급의 투사입니다. 저는 담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진리를 쫓아 이 위대한 도시의 공익 대변인직을 수행하겠습니다.

*본 후보물은 후보자가 제출한 내용을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후보자는 선거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